

호남서부터 ‘정동영 바람’

신당-민주 합당 시너지 효과 극대화... 호남 표심 결집 나서

민주당과 통합 및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대통령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3일 광주와 전주를 잇따라 방문, 범여권의 전폭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부터 ‘정동영 바람’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합당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호남표심 결집에 나선 것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남구 구동실내체육관에서 순환구·김근태 공동선대위원장과 천정배 가족행복위원회 위원장, 문희상·정세균 의원 등 선대회 주요 지도부와 양형일 광주선대위원장, 신중식 전남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선대위 및 가족행복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의환위기 이후 ‘위기극복의 10년’에 이어 ‘영광의 10년’을 열겠다”며 ▲고용률 70% 달성 ▲글로벌 톱10 산업 육성 ▲강한 중소기업 5단계 육성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등 한반도 대철도 건설 ▲개방형 복지국가 건설 등 5대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개혁세력의 승리와 영광의 10년을 위해 우리가 힘을 합치는 길 밖에 없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민주당과 통합에 합의했다”며 “영광의 10년을 이 곳 광주에서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저쪽(한나라당)은 분열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면 지금은 어렵지만 12월 19일 투표를 열면 승리할 수 있다”며 “이명박 후보가 늘 경제성장 이야기를 하지만 국가를 파탄시킨 집단은 성장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광주·전남지역 당원 5천여명 행사장 안팎을 가득 메운채 ‘정동영’을 연호, 민주당과의 합당 선언에 따른 기대감을 실감케했다.

정 후보는 출범식에 앞서 광주시의 한 식당에서 가진 지역원료 오찬간담회에서 “광주가 지난 10년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하고 성원해주셨는데 돌아온 것은 참담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자존심을 보살펴드리겠다고 감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대통령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가 13일 광주 구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전남선대위 및 가족행복위원회 출범식’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명박, 다시 경제속으로

당 내분 진정국면... 경제살리기 특위 주재 정책공약 발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당 내분이 진정되자 다시 경제 행보를 시작했다.

이 후보의 경제 행보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작지만 강한기업,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면서 “차기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는 적게, 지원은 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오후 인천 부평에서 열리는 ‘국민성공대장정 인천대회’에 앞서 인천항만을 찾아 자신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한 물류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번 주 중에 자신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경제정책 공약을 분야별로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어 오는 15일에는 ‘국민성공대장정 강원

대회’가 열리는 강원도 강릉을 찾아 관광분야 타운미팅을 개최하며, 다음주에는 정보기술(IT), 농업분야 타운미팅을 잇따라 갖기로 했다.

한 핵심측근은 “이 후보가 대권도전 이후 스스로 신바람나고 여론지지도도 상승곡선을 그렸던 때는 민생탐방을 하면서 경제대통령의 이미지가 부각됐을 때”라면서 “최근 불가피하게 여의도 정치에 매몰됐으나 앞으로는 가능하면 경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닷새째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단식농성 중인 권철현 의원을 위로 방문하고 조속한 단식 중단과 당무 복귀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대위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권 의원을 보좌마자 ‘진한’ 포용을 나누면서 “고생 많다. 이런 일이 발생한 데는 내 책임도 조금 있는 것 같다. 미안하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13일 인천 부평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대장정 인천대회에서 당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연광뉴스

현장과 시각

투자유치 외발달리기



김주정

사회1부 차장

광주시의 투자유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02년 28건 83억원에 불과하던 투자유치가 점점에 달한 것은 이듬해인 2003년. 삼성전자의 수인 백백 개건라인이 광주로 옮겨오고, 기아자동차가 스포티지 생산라인을 구축하면서 협력업체들이 몰려오고 한 해 동안 국내의 103개 기업이 3천224억원을 투자

했던 것이다.

이후 2004년 70개 기업, 2005년 73개 기업 등 기업들의 광주이전은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2006년 106개 기업·3천56억원으로 다시 세 자리 숫자로 올라서더니, 올해도 10월 말 현재 85건 1천997억원의 실무자가 이뤄졌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00건의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와 18개 기업의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현장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화기애애하고 희망적이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오늘 아침 20년 전 하남산단에 한국알프스를 설립한 일본 알프스전기 카타오카 마타사카 사장에 광주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소개하고 “광주에 투자하는 여러분도 성심껏 모시겠다”고 환영했다.

수도권에서 온 LED생산업체 엔하이테크의 박호진 대표는 “작년 7월 광주에 임대공장을 마련해 시험생산을 했다. 생산율이 본 공장보다 30% 높고 불량률도 훨씬 낮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공무원들이 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우수한 졸업원에 광기술원·생산기술원 등 연구기관까지 특트하게 갖춰 광주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경남 창원에서 함께 옮겨오기로 한 ㈜창원특수강 등 3개 회사 대표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연구개발기간과 집적화단지를 만들어 놓으니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광주 경제의 다른 한 축인 광주상공회의소는 전혀 다른 모습을 연출했다. 제19대 광주상공회의소 후임회장 선출을 놓고 후보로 나선 박흥식 럭키산업 대표와 이승기 삼능건설 대표가 격돌하면서 회장 선출을 1주일 연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15일 마형철 회장이 사퇴한 이후 ‘전통에 따라 회장은 합의 추대하자’던 결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불협사운 세 대결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걱정이 광주상의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노동계의 사정도 투자유치를 하는데 그리 우호적이지 못하다. 지난해 한미 FTA 반대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광주시청 청소용역직 해고 문제 등으로 광주시와 민노총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로 몰려 오는 기업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음에 걱정되는 수준이다. 자치단체와 노동계, 그리고 경제계가 한 마음으로 모처럼의 기회를 살려나갔으면 한다.

j/jnews@kwangju.co.kr

남북 총리회담 오늘 서울서 개막

서해평화지대·개성공단 3통·이산상봉 확대 등 논의

지난달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07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4일 서울에서 2박3일 일정을 마감했다.

이번 회담은 1992년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15년 만에 열리는 총리 간 만남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남북 대표단과 김영일 내각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은 회담 첫날인 14일 오후 회담장인 서울 광장동 위커퉴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의를 들어간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에 고려항공편으로 평

양을 출발, 오전 11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남북총리회담에서는 지난달 도출된 남북정상선언의 이행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정부는 정상선언 10개항을 45개 세부 의제로 나눈 뒤 각각의 의제별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개성공단 3통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 3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핵심 의제로 상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종 경험사업의 경우 북측의 군사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북 모두 회담 대표단에 군 인사가 빠져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

려도 있다. 갈등의 바다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기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고 있는 만큼 총리회담에서도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사안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해주항 개발 ▲해주경제특구 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의 이행기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공동위원회(가칭)’를 만드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다. 그러나 3통문제 역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군부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이번 총리회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 지는 불투명하다.

또 내년 3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완공에 대비한 이산가족 상봉 확대에 대한 합의도 이번 회담에서 추진된다.

/연합뉴스

강도석 시의원 “내년 2월 사퇴” 선언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역의원이 당선 7개월만에 자진사퇴를 선언, 지역 유권자들을 당혹케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강도석 의원(무소속·남구1)은 13일 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시의회를 떠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선 이후 5개월여 동안 특급호텔 건립 특혜 의혹을 파헤쳤으나 지방의원의 역할에 한계를 느꼈다”며 “보다 큰 곳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다소 미안하지만 남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만큼 지역민에게 다시 심판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중도하차 선언은 무소속으로만 총선·단체장·광역의원 출마 ‘11전 12기’의 진기록 끝에 지난 4월 재선거로 시의원 배지를 단 지 7개월 만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OPEN 11월 20일

랜드피아 7080

영양분 배합된 가수 노래공연을 항상 무료로 제공하며

대형주방 목욕탕까지

상무지구 한드피아 오디스텔 3층 ~ 4층에 위치

Tel. (062)381-5542, 382-5542

발암유해 제0526780호 - 특허 노획된 생체분해 나노의심 특수담배 필터 개발 특허등록

담배뚝! 독소안녕~

생약재 추출물, 신물질 상균관대학교 기능성식품공학연구소 개발

복합고기능 천연 KBS, MBC, YTN, TV에스 및 각종 언론 집중보도

담배뚝! 생약재 추출물, 신물질 상균관대학교 기능성식품공학연구소 개발

개발 배경 담배는 인체 건강에 해로운 니코틴과 타르를 흡연 시 흡입하여 암을 유발하며, 폐 질환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담배 연기는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생약재 추출물과 신물질을 결합하여, 담배 연기의 독성을 줄이고,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담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발 내용 본 연구는 생약재 추출물과 신물질을 결합하여, 담배 연기의 독성을 줄이고,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담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담배는 기존 담배에 비해, 흡연 시 흡입되는 니코틴과 타르의 양을 줄이고, 흡연 후 발생하는 폐 질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줄인다. 또한, 담배 연기의 특이한 냄새를 줄여, 흡연자의 쾌적함을 높인다.

개발 효과 본 연구는 생약재 추출물과 신물질을 결합하여, 담배 연기의 독성을 줄이고,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담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담배는 기존 담배에 비해, 흡연 시 흡입되는 니코틴과 타르의 양을 줄이고, 흡연 후 발생하는 폐 질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줄인다. 또한, 담배 연기의 특이한 냄새를 줄여, 흡연자의 쾌적함을 높인다.

개발 기대 본 연구는 생약재 추출물과 신물질을 결합하여, 담배 연기의 독성을 줄이고,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담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담배는 기존 담배에 비해, 흡연 시 흡입되는 니코틴과 타르의 양을 줄이고, 흡연 후 발생하는 폐 질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줄인다. 또한, 담배 연기의 특이한 냄새를 줄여, 흡연자의 쾌적함을 높인다.

문의처: (062)381-5542, 382-5542